

중국의 서학, 유럽의 중국학 2

- 근대 유럽 지식인이 본 중국:
'진기한 나라'에서 '방부 처리된 미라'로 -

이 기획논문은 인문논총 지난 호(제 67집)에 「중국의 서학, 유럽의 중국학 - 17세기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들의 초기 번역과 문자 이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획논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 호에 실린 네 편의 기획논문이 '중국의 서학'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발표되는 세 편의 기획논문은 '유럽의 중국학'에 대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차례의 기획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의 공동연구팀 중 하나인 시나로파(sinaropa)팀이 지난 2년간 수행해온 연구 성과의 한 부분이다. 시나로파팀은 17세기 중국에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들이 한편으로는 서양의 신학, 천문학, 수학, 건축학, 미술 등을 중국에 소개하여 동양에 불려일으킨 지적 자극(중국의 서학)에 대해 연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중국의 경전을 라틴어와 불어 등으로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함으로써 당대 유럽의 계몽주의에 미친 영향(유럽의 중국학)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공동연구 모임이다.

고대 이래로 중국은 비단과 도자기, 차와 향료 등 온갖 진귀한 물품이 생산되어 전해져오는 진기한 나라로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이 진기한 나라에 도달하려는 유럽인들의 열망은 마침내 대항해시대

의 개막을 초래하여, 유럽과 중국 사이에 직접적인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역의 규모는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문화와 관습의 커다란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자의 장벽으로 인해 물질 교류에 상응하는 문화적 교류는 오랫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17세기에 당시 유럽 최고의 지식인집단이었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동서양 사이에 정신적 가교가 놓이게 되었다. 중국의 사상, 역사, 제도, 문물 등에 관한 이들의 보고는 계몽주의 시기 유럽 지식인들에게 중국 연구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종교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힘인 이성에 의거하여 이룩된 중국의 세련된 정치와 문화는 당대 유럽의 계몽주의 지식인들에게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 한때 중국은 타락한 서양세계를 교정할 수 있는 실천철학의 모범적 국가(라이프니츠)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현실에 구현된 나라(크리스티안 볼프)로 찬양되기까지 하였으나, 서양사상사에서 역사철학적 사유가 등장한 18세기 말에 와서는 “방부 처리된 미라”(헤르더)로 한 순간 커다란 평가절하를 겪게 된다. 이 과정을 단선적으로나마 추적해보려는 것이 이 기획의 의도이다.

첫 번째 논문인 안재원의 「쿠플레의 『중국인 철학자 공자』 - *Natura* (性) 개념 이해 문제를 중심으로」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이루어낸 중국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히는 쿠플레의 『중국인 철학자 공자 혹은 중국의 학문』(*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sive Scientia Sinensis*)에서 동양 인문학의 전통과 서양 인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natura* 개념의 이해 문제를 중심으로 추적한 글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쿠플레가 *natura* 개념을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했음을 해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쿠플레에게서 *natura* 개념은 첫째로 자연신학(*religio naturalis*)의 관점에서 본 이성의 의미로, 둘째로 자연학의 관점에서 본 물질의 원리로, 셋째로 보유론(補儒論)의 관점에서 본 신적인 본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해명을 통해 그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그리스도교를 중국에 전파하기 위해 일종의 현지화 전략인 적응주의를 택했듯이, 쿠플레도 유학을 서양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일종의 현지화 전략을 취함으로써 동서양 사이에 지적 가교를 놓았으며, 이를 통해 유럽 계몽주의자들이 중국에서 이성의 보편성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인 박배형의 「중국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이해와 중국 철학에 대한 그의 해석 - 『최근 중국 소식』과 『중국인의 자연신학론』을 중심으로」는 유럽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철학의 대표적 사상가 중 하나인 라이프니츠가 중국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을 표명한 두 편의 중요한 글에서 동서양의 문화와 사유전통 사이에 가교를 마련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추적하고, 이것이 오늘날에 지니는 시의적 의미를 강조한 글이다. 그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식(*Novissima Sinica*)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대단히 현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적 타자에 대한 이해와 문명 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서양간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교류가 지식의 진보 및 인류 전체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유가 철학을 자연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한 『중국인의 자연신학론』은 중국의 유가철학은 무신론이 아니라 신학적 차원에서 해명될 수 있는 사상이며, 나아가 유럽과 중국 두 문명권의 신학은 근본적으로는 상통한다는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동서양의 사유전통을 합리적 형이상학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연결하려 하였다.

마지막 논문인 안성찬의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과 헤르더의 중국 - 18세기 독일에서의 중국관 변화에 대한 소고」는 18세기 독일에서 나타난 중국관의 급격한 변화를 크리스티안 볼프의 중국관과 헤르더의 중국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과 배경을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는 중국의 유교문명이 18세기를 거치면서 깊은 관심과 열렬한 예찬의 대상(라이프니츠, 크리스티안 볼프, 볼테르)에서 문명의 불편함에 대한 예증(루소, 하만, 리히텐베르크, 청년기 괴테)으로 그리고 심지어 “방부 처리된 미라”(헤르더)로 급격한 추락을 겪게 되는 과정과 그 구체적 양상을 추적하였다. 이처럼 중국관이 변화된 원인을 그는 타자로서의 동양을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인식지평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즉, 이러한 변화의 추이는 서양의 지성사가 이성의 보편성을 강조한 전기 계몽주의운동으로부터 개별적 감성과 역사철학적 자의식을 발견한 후기 계몽주의운동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안 성 찬